

매계 조위의 피화·복권과 역사적 평가

이 남 옥*

- I. 머리말
- II. 매계 조위의 학문 연원과 관직 생활
- III. 무오사화와 조위의 피화
- IV. 사후 복권과 역사적 평가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사화에 희생된 조위의 피화와 복권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어려서부터 매부인 김종직과 당백부인 조계문에게 수학한 조위는 1472년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고, 1472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이후 사헌부 지평·홍문관 교리·충청도 관찰사·도승지 등을 역임하였고, 시문에 능해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 연산군 즉위 후에도 한성부 우윤·성균관 대사성·오위도총부 부총관 등에 제수되고, 1498년에는 성절사로 명나라를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위가 명나라에 성절사로 간 그때 조선에서는 무오사화가 일어났고, 그는 귀국과 함께 잡혀와 국문을 받고 유배가게 되었다. 그가 김종직의 처남이자 문인이며 김종직의 문집을 편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koman82@koreastudy.or.kr

그리고 1503년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성종 대를 대표하는 문장가로 인정받았으며,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외직을 청한 일로 忠孝兼全의 인물로 평가 받았다. 또한 연산군 대 폭정에 항거한 명현으로 추앙받았다. 이러한 평가로 인하여 김천의 경림서원과 황간의 송계서원에 배향되었으며, 文莊이란 시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5세손 조유, 6세손 조세봉, 8세손 조문검은 명현의 후손이란 이유로 증직되거나 관직을 제수받았다. 이는 조위를 충효겸전한 인물로 조정에서 현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주제어 _____

曹偉, 士禍, 忠孝兼全, 景濂書院, 松溪書院

I. 머리말

본고는 士禍에 희생된 曹偉(1454~1503)의 피화와 복권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가 주로 활동했던 15세기 후반 조선은 世祖(1417~1468)가 端宗(1441~1457)을 폐출하고 왕위에 오른 뒤 王權과 臣權, 勳舊와 士林의 갈등이 점차 고조화 되는 시기였다. 특히 燕山君(1476~1506) 대 일어난 戊午士禍와 甲子士禍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死刑·流配·告身削奪·剖棺斬屍 등의 화를 입었다.¹⁾

연산군 대 사화의 희생자는 대체로 金宗直(1431~1492)과 관련 있는 인물이었는데, 조위는 김종직의 처남이면서 문인이었으며, 김종직의 문집을 편집한 인물로 지목되어 화를 입었다.²⁾

그동안 조위에 대해서는 최초의 국문 유배가사인 萬憤歌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³⁾ 그의 문학 작품에 주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대체로 조위를 김종직에 의해 형성된 사림과 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⁵⁾ 관료 문인의 삶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⁶⁾ 다만 역사적 맥락 하

-
- 1) 金範 「朝鮮 燕山君代의 王權과 政局運營」, 『大東文化研究』 53, 2006, 271~272쪽.
 - 2) 『梅溪集』 권5 「先生墓表」. “奸臣起金駟孫之獄, 以公爲佔畢婦弟, 且門弟, 欲去之.”
 - 3) 이가원, 「萬憤歌 研究」, 『동방학지』 6, 연세대학교, 1963.
 - 4) 이구의, 「梅溪 曹偉의 歷史意識 - 鷄林八觀을 중심으로」, 『상주문화연구』 5, 1995; 이동재, 「梅溪 曹偉의 文學觀」, 『한문교육연구』 15, 2000; 이동재, 「梅溪 曹偉의 <平壤八絶> 시 연구」, 『우리文學研究』 13, 2000; 이구의, 「梅溪 曹偉의 문학에 나타난 정신세계 - 그의 散文을 중심으로 -」, 『韓國思想과 文化』 20, 2003; 이동재, 「梅溪 曹偉의 <鷄林八觀> 詩攷」, 『漢文古典研究』 7, 2003; 이동재, 「梅溪 曹偉의 <遊松都詩 研究」, 『漢文古典研究』 14, 2007; 이의강, 「梅溪 曹偉 漢詩의 문예미학적 성취」, 『漢文學報』 17, 2007; 이동재, 「梅溪 曹偉 편집 『遊松都錄』 소재 한시연구」, 『한문교육연구』 31, 2008; 이성형, 「梅溪 曹偉의 燕行文學 研究」, 『漢文古典研究』 25, 2012.
 - 5) 허권수, 「매계집 해제」, 『南冥學研究』 5, 1995, 299쪽; 尹浩鎭, 「梅溪 曹偉의 學問淵源과 詩世界: 佔畢齋 金宗直 門下에서의 位置와 戊午士禍를 전후한 詩世界의 두 局面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 20, 2005, 104쪽.
 - 6) 장철식, 「梅溪 曹偉 詩文學의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광귀남, 「梅溪 曹偉의 詩文學에 나타난 官僚文學의 性格」,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에서 조위의 생애와 죽음 이후 상황에 대해 주목하여 연구되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산군 대 피화와 사후 복권·추숭 과정 그리고 조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매개 조위의 학문 연원과 관직 생활

조위는 1454(단종 2년) 7월 10일에 金山郡 鳳溪里의 집에서 아버지 曹繼門(1414~1489)과 어머니 文化柳氏의 아들로 태어났다.⁷⁾ 그는 5세 때인 1458년(세조 4)에 말과 함께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10세 때인 1463년(세조 9) 가을에 김충직에게 가서 수학했다.⁸⁾ 그리고 1464년(세조 10)에 당백부 曹錫文(1413~1477)에게 『小學』을 배웠다.⁹⁾

7) 『梅溪集』 권5 「先生墓表」. “公諱偉, 字大虛, 號梅溪, 昌寧其本也. 考諱繼門, 蔚珍縣令, 以公故, 贈吏曹參判. (중략) 再室柳汶女, 景泰甲戌七月庚申, 生公于金山郡鳳溪里第.”

8) 庶弟適菴伸編次, 『매계집』 「梅溪先生年譜」. “天順二年. 【我世祖大王四年】 戊寅. 公五歲, 公學語, 便知文字. (중략) 天順七年. 【我世祖大王九年】 癸未. 公十歲. (중략) 秋, 公往學于姊兄佔畢齋.”

9) 曹錫文(1413~1477) : 1434년(세종 16)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부수찬·사간원 정언·이조 정랑·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455년 단종이 세조에게 양위할 때 적극 참여하여 佐翼功臣 3등에 책록되었고, 1457년(세조 3)에는 도승지가 되었다. 1459년(세조 5)에 야인에게 관직을 수여한 일로 명나라에서 문제 삼자 奏聞使가 되어 명나라를 다녀왔다. 이 일로 昌寧君에 봉해졌다. 1467년(세조 13)에 李施愛(?~1467)의 난을 토평한 공으로 敵愾功臣 1등에 책록되었고, 곧 영의정에 올랐다. 1468년(예종 즉위)에는 南怡(1441~1468)의 옥을 다스린 공으로 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었고, 1471년(성종 2)에는 성종 즉위를 보좌한 공으로 佐理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476년(성종 7)에 다시 좌의정을 제수하였으나 병으로 사직하니 昌寧府院君에 봉해졌고, 1477년(성종 8)에 영중추부사에 제수되었는데 병으로 졸하였다. [『國朝人物考』 권 1 「相臣_曹錫文」 부분 참고]

曹敬修 — 曹渾 — 曹孝門
 └ 曹沆 — 曹錫文 — 曹頤(系)
 └ 曹深 — 曹繼門 — 壻金宗直
 └ 曹偉 — 曹士虞(系)
 └ 曹倫
 └ 曹佺
 └ 曹伸
 └ 壻崔松壽
 └ 壻金諤種
 └ 壻崔孟潛

※ 조위 가계 약도¹⁰⁾

조석문은 조위를 보고 훌륭하게 될 인물이라고 여겨 家塾에 머물게 하고는 직접 『소학』을 가르쳤다.¹¹⁾ 1465년(세조 11)에도 조석문의 집에서 책을 읽으며 경전의 이치를 講問하였는데 이때 학문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¹²⁾

10) “조위 가계 약도”는 『萬家譜』 13책에 수록된 창녕조씨 가계 부분과 『매계집』 권4 「先考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通訓大夫蔚珍縣令府君墓表」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조위의 형제를 기록한 부분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공은 먼저 河濱李氏를 취하여 1녀를 낳았는데, 資憲大夫 刑曹判書 金宗直에게 시집갔다. 後娶로 文化柳氏를 얻어 1남 偉를 낳았는데, 지금 관직이 嘉善大夫 戶曹參判에 이르렀다. 側室에게서 6남 4녀를 낳았는데, 倫은 宣略將軍이고, 佺은 效力副尉이고, 伸은 通德郎 司譯院主簿이며, 큰 딸은 崔松壽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金諤種에게 시집갔고, 셋째는 崔孟潛에게 시집갔다.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조위, 『매계집』 권4 「先考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通訓大夫蔚珍縣令府君墓表」. “公先娶河濱李氏, 生一女, 適資憲大夫刑曹判書金宗直. 後娶文化柳氏, 生一男偉, 今官至嘉善大夫戶曹參判. 側室生六男四女, 曰倫, 宣略將軍, 曰佺, 效力副尉, 曰伸, 通德郎司譯院主簿, 女適崔松壽, 次適金諤種, 次適崔孟潛, 餘皆幼.”]

11) 서제적암신편차, 『매계집』 「梅溪先生年譜」. “天順八年. 【我世祖大王十年】 甲申. 公十一歲. (중략) 秋, 先公率公上京, 質其從父兄忠簡公, 忠簡公見而器之, 親授『小學』, 置之家塾, 【忠簡公諱錫文】”

조위는 이러한 학문 배경을 바탕으로 19세 때인 1472년(성종 3)에 생員試와 進士試에 모두 합격했고, 21세 때인 1474년(성종 5)에는 문과에 급제했다.¹³⁾ 조위는 생원시·진사시와 문과 급제 때 모두 조석문의 집에서 應榜하였다.¹⁴⁾ 이를 통해 조석문과 조위가 특별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¹⁵⁾

한편, 1472년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 이후 김산에 가서 先塋을 성묘하였고, 蔚珍에 가서 축하연을 베풀었다. 이어서 昌寧과 靈山에 있는 선산을 성묘하고 咸陽에 들러서 講問하였는데 막힘없이 박학했다. 함양에는 김종직이 군수로 있었기 때문에 들렀던 것이다.¹⁶⁾

조위는 1474년 문과 급제 이후에 承文院 正字를 시작으로 藝文館 檢閱 등 관직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1475년(성종 6) 國喪 중에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한 죄로 司憲府의 탄핵을 받아 告身이 거두어지고 김산군에 付處되었다.¹⁷⁾ 1476년(성종 7) 2월 5일에 성종은 義禁府와 사헌부에 명하여 조위를 방면하게 하였고,¹⁸⁾ 같은 해 6월 17일에 이조에 傳旨하여 고신을 돌려주도록 하였다.¹⁹⁾

12) 서제적암신편차, 『매계집』 「梅溪先生年譜」, “憲宗純皇帝成化元年, 【我世祖大王十一年】 乙酉. 公十二歲. 讀書于昌寧君第, 講問經理, 得聞爲學之方. 【昌寧君即忠簡公】”

13) 『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成化八年壬辰 月 日司馬榜目』.

14) 庶弟適菴伸編次, 『매계집』 「梅溪先生年譜」, “成化八年, 【我成宗大王三年】 壬辰. 公十九歲. 正月, 中司馬覆試兩場, 應榜于昌寧君第. (중략) 成化十年, 【我成宗大王五年】 甲午. 公二十一歲. 春, 中式年丙科及第, 應榜于昌寧君第.”

15) 조위가 문과에 급제하자 성종은 조석문의 집에 내관을 보내 宣醢를 내려주었다. 또한 이때 신숙주와 한명회의 집에도 선운을 함께 내렸는데 신숙주의 아들 신형과 한명회의 조카 한언이 조위와 함께 급제했기 때문이다. [『成宗實錄』 권40, 성종 5년 3월 20일 을사 3번째 기사.] 조석문은 좌익공신·적개공신·익대공신·좌리공신에 책록된 훈구대신이며, 특히 성종의 즉위를 보좌한 공이 있으므로 성종은 조석문을 신숙주·한명회와 마찬가지로 우대하였던 것이다.

16) 서제적암신편차, 『매계집』 「梅溪先生年譜」, “成化八年, 【我成宗大王三年】 壬辰. 公十九歲. 正月, 中司馬覆試兩場, 應榜于昌寧君第. 到金山, 榮掃先塋, 到蔚珍, 設慶席. 仍往昌寧·靈山, 省掃先山. 轉往咸陽, 講問博洽, 時佔畢公爲郡守.”

17) 『성종실록』 권60, 성종 6년 10월 3일 기묘 2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60, 성종 6년 10월 13일 기축 6번째 기사.

18) 『성종실록』 권64, 성종 7년 2월 5일 기묘 3번째 기사.

1476년 6월 14일에는 議政府·吏曹·館閣의 堂上이 賜暇讀書할 文臣을 뽑아서 아뢰었는데, 조위는 吏曹 正郎 蔡壽(1449~1515)·成均館 直講 權健(1458~1501)·司憲府 監察 許琛(1444~1505)·奉常寺 副奉事 兪好仁(1445~1494)·承文院 正字 楊熙止(1439~1504) 등과 함께 뽑혀 藏義寺에서 사가독서를 행하였다.²⁰⁾ 1477년(성종 8)에는 성종의 명을 받아 「讀書堂記」를 찬술하였다.²¹⁾

조위는 1478년(성종 9)부터 1484년(성종 15)까지 司經·檢討官·侍講官 등으로 經筵에 참석하여 『左傳』 『隱公 4년조』, 『論語』 『子罕篇』, 『綱目續編』, 『資治通鑑』 등을 논하였다.²²⁾ 그의 經學과 經문이 경연 석상에서 드러나는 일이었다.

조위의 시문 또한 조정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성종은 1480년(성종 11) 4월에 승정원에 명해 喜雨·靺鞨에 대한 律詩와 皇華賦를 제목으로 弘文館 관원들을 시험하게 했는데 홍문관 수찬 조위가 제출한 것이 으뜸이어서 漆籠을 내려 주었다.²³⁾

성종은 같은 해 5월에도 홍문관 관원을 殿庭으로 불러 箋의 제목 하나와 詩의 제목 둘을 내어 시험하였는데, 홍문관 校理 金訥(1448~1492)이 지은 전과 시 한 편이 수위를 차지하고, 조위의 시 한

19) 『성종실록』 권68, 성종 7년 6월 17일 무자 3번째 기사.

20) 『성종실록』 권68, 성종 7년 6월 17일 무자 3번째 기사; 庶弟菴庵伸編次, 『매계집』 「梅溪先生年譜」. “成化十二年. 【我成宗大王七年】 丙申. 公二十三歲. 六月, 上命選公及蔡壽·權健·許琛·兪好仁·楊熙止等六人, 賜暇讀書于藏義寺.”

21) 서제적암신편차, 『매계집』 「梅溪先生年譜」. “成化十三年. 【我成宗大王八年】 丁酉. 公二十四歲. 正月, 拜弘文正字, 兼讀書堂. 奉敎, 撰讀書堂記.”; 이 「독서당기」는 『매계집』 권4에 수록되어 있다.

22) 『성종실록』 권98, 성종 9년 11월 25일 임오 3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103, 성종 10년 4월 22일 무신 1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103, 성종 10년 4월 22일 무신 2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103, 성종 10년 4월 22일 무신 3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104, 성종 10년 5월 1일 병진 1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104, 성종 10년 5월 18일 계유 5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116, 성종 11년 4월 1일 신해 1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116, 성종 11년 4월 16일 병인 1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167, 성종 15년 6월 5일 경신 1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167, 성종 15년 6월 19일 갑술 1번째 기사.

23) 『성종실록』 권116, 성종 11년 4월 24일 갑술 3번째 기사.

편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성종은 김흔에게 紗 1匹을, 조위에게 활 1張을 상으로 내려 주었다.²⁴⁾

성종은 같은 해 11월에도 홍문관·藝文館의 당하관 注書 등을 仁政殿 뜰에 모이게 하여 東郊觀獵에 대한 排律 30韻과 賀親行釋奠에 대한 頌을 짓게 하고, 右議政 洪應(1428~1492)·雞林君 鄭孝常(1432~1481)·都承旨 金季昌(?~1481)·右副承旨 成倪(1439~1504)에게 명해 考選하게 하였는데, 律詩에는 홍문관 교리 김흔이, 송에는 修撰 조위가 장원을 하였다. 또 김흔과 조위에게 명하여 仁政殿 早朝라는 읍시를 짓게 해서 高下를 정하기로 하였는데, 함께 합격하였으므로, 각각 말 한 필을 내려 주었다.²⁵⁾

1482년(성종 13)에는 홍문관 관원과 주서·사관에게 명령하여 ‘流觴曲水’에 대한 排律 20운을 지어 바치게 하였는데, 조위와 권건이 지은 읍시가 서로 맞먹었다. 그래서 ‘玉堂春興’의 10운을 지어 바치게 하니, 조위의 것이 수석이 되었으므로, 馬粧을 내려 주었다.²⁶⁾

이 무렵 성종은 조위를 김흔과 더불어 문예가 있어 쓸만한 인물로 평가하였고 특별히 한 資級을 올려주기도 하였다.²⁷⁾ 또한 李坡(1434~1486)는 “지금의 文翰을 맡은 자로서 徐居正(1420~1488)과 李承召(1422~1484)는 이미 늙었는데,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릇 사람의 소질은 어떤 사람은 經書를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여러 史籍을 잘 알고, 어떤 사람은 詩章을 잘 짓기도 하는데, 경서는 李世佑(1449~1490)·金應箕(1457~1519) 같은 사람이, 여러 사적은 丁壽崑(1452~1486)·趙之瑞(1454~1504) 같은 사람이, 시장은 조위·申從濩(1456~1497) 같은 사람이 모두 배워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²⁸⁾ 이는 조위의 시문에 대한 당대 평가가 높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24) 『성종실록』 권117, 성종 11년 5월 20일 기해 3번째 기사.

25) 『성종실록』 권120, 성종 11년 8월 9일 병진 3번째 기사.

26)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22일 신유 2번째 기사.

27) 『성종실록』 권140, 성종 13년 4월 14일 임자 4번째 기사.

28) 『성종실록』 권152, 성종 14년 3월 8일 경자 2번째 기사.

하겠다.

1484년(성종 15) 6월에 홍문관 副應敎로 있던 조위는 ‘아버지가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봉양하겠다’고 사직을 청하였는데, 성종은 “조위는 시종하는 신하이며 재주가 있다. 그 부모가 늙었더라도 병이 없다면 시종하는 여가에 가서 살필 수 있을 텐데, 예전에도 이런 전례가 있는가?”라고 하니, 승정원에서는 “조위의 아버지는 나이가 70이 넘었고, 목은 병이 있는데, 조위는 외아들이므로 돌아가 봉양할 뜻이 절박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성종은 “고향 가까운 곳의 수령으로 차출하라.”고 하였고, 이후 조위의 청을 아름답게 여겨 함양군수에 제수하였다.²⁹⁾

한명회는 조위의 시문을 높이 평가하며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지만 국가의 인재를 기르는데는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외직에 보임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었다. 그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문명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으며, 전일 중국 사신 倪謙과 祁順이 왔을 때에 申叔舟(1417~1475)와 서거정의 무리가 함께 酬唱한 것은 지금까지도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姜希孟(1424~1483)과 이승소도 다 죽고 살아 있는 자는 오직 서거정뿐입니다. 홍문관 응교 조위가 시문을 잘 짓는데, 어버이가 늙었다고 사직하여 특별히 함양 군수에 제수되었으니,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으나, 국가에서 인재를 기르는 데에 있어서는 옳지 못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³⁰⁾ 한명회는 신숙주·서거정·강희맹 등의 뒤를 잇는 문장가로 조위를 꼽았던 것이다.

1485년(성종 16) 2월에 경상도 관찰사 李克基(?~1489)가 함양 군수 조위·전 거창 현감 유호인이 지은 詩를 책으로 만들어 올렸다. 성종이 전에 이극기에게 조위와 유호인의 저술을 연초마다 書啓하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성종은 “우리나라는 事大하게 되므로, 글 잘 짓는 사람을 내가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조위와 유호인이 모두 경연관이었다가 어버이를 위해 外方에 있으니, 내가 珍重하게 여기는 뜻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³¹⁾ 그리고 성종은 경상도 관찰사 이극

29) 『성종실록』 권167, 성종 15년 6월 22일 정축 1번째 기사.

30) 『성종실록』 권168, 성종 15년 7월 5일 기축 3번째 기사.

기에게 글을 내려 조위와 유호인의 아버지에게 쌀과 콩을 주게 하고³²⁾ 이어서 조위와 유호인에게 글을 내려 칭찬하였다.³³⁾ 그러자 같은 해 4월 19일에 조위는 箋文을 올려 謝恩하였다.³⁴⁾

1488년(성종 19)에도 성종은 1485년과 마찬가지로 경상도 관찰사 成俔에게 글을 내려 조위와 유호인의 아버지에게 먹을거리를 내리게 하였고 이어서 조위와 유호인에게 글을 내렸다.³⁵⁾

사대교린과 같은 외교적 일로 인하여 문장가를 중시했던 성종이지만, 경연관 조위가 아버지를 위해 외방으로 가기를 자청한 것은 효와 관련된 일이므로 말할 수 없어 그 아버지에게는 쌀·콩·소금·미역·청주 등을 보내고 조위에게는 칭찬하는 글을 내려 아끼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다.³⁶⁾

함양군수로 있던 조위는 1489년(성종 20)에 아버지 조계문의 상을 당했고, 3년상을 마친 후 의정부 檢詳으로 중앙 관계에 복귀했다.³⁷⁾ 이후 조위는 同副承旨·右承旨·도승지 등으로 성종의 측근에서 활약했으며, 參贊官·對讀官 등으로 꾸준히 경연에 참석하였다.

31) 『성종실록』 권175, 성종 16년 2월 28일 경진 2번째 기사.

32) 『성종실록』 권176, 성종 16년 3월 3일 갑신 2번째 기사.

33) 『성종실록』 권176, 성종 16년 3월 3일 갑신 3번째 기사.

34)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 4월 19일 경오 4번째 기사.

35) 『성종실록』 권221, 성종 19년 10월 24일 갑인 4번째 기사.

36) 조위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외직을 자청한 일은 일종의 전례가 되었고, 훗날 『羹牆錄』에 수록되어 순조 때 경연에서 읽히기까지 하였다. 『갱장록』과 관련된 내용은 4장에 서술하였다.

37) 『성종실록』 권253, 성종 22년 5월 9일 갑신 8번째 기사.

【표 1】 매계 조위의 주요 관력

연번	서력(왕력)	관력	연번	서력(왕력)	관력
1	1475년(성종 6)	예문관 검열	11	1492년(성종 23)	우부승지
2	1479년(성종 10)	영안도 경차관	12	1492년(성종 23)	우승지
3	1481년(성종 12)	홍문관 부수찬	13	1492년(성종 23)	좌승지
4	1482년(성종 13)	홍문관 부교리	14	1492년(성종 23)	도승지
5	1482년(성종 13)	사헌부 지평	15	1493년(성종 24)	호조 참판
6	1483년(성종 14)	세자 시강원 문학	16	1494년(성종 25)	충청도 관찰사
7	1484년(성종 15)	홍문관 부응교	17	1495년(연산군 1)	성균관대사성
8	1484년(성종 15)	함양 군수	18	1498년(연산군 4)	동지중추부사 겸 부총관
9	1491년(성종 22)	의정부 검상	19	1498년(연산군 4)	특진관
10	1491년(성종 22)	동부승지	20	1498년(연산군 4)	성절사

1493년(성종 24)에 이조에서 조위를 正朝使로 擬望하였지만, 조위는 어머니가 연로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양하였고 받아들여졌다.³⁸⁾ 그러나 성종은 조위가 文藝가 있으므로 중국에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조로 하여금 다음에는 의망하게 하였다.³⁹⁾ 결국 조위는 1498년(연산군 4)에 聖節使로 명나라를 다녀오게 되었다.⁴⁰⁾

하지만 조위가 성절사로 명나라에 있던 그때 조선에서는 무오사화가

38) 『성종실록』 권278, 성종 24년 윤5월 20일 계축 1번째 기사; 『성종실록』 권281, 성종 24년 8월 11일 계유 3번째 기사.

39) 『성종실록』 권278, 성종 24년 윤5월 20일 계축 2번째 기사.

40) 『연산군일기』 권29, 연산 4년 4월 11일 병자 1번째 기사.

일어났고, 조위는 귀국과 함께 잡혀와 국문을 받고 유배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Ⅲ. 무오사화와 조위의 피화

李克墩(1435~1503)은 『成宗實錄』을 편수할 때 實錄廳堂上으로 있으면서 김일손이 쓴 史草를 가지고 柳子光(1439~1512)과 모의하여 연산군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연산군은 김종직의 사림 세력과 능상을 저지른 대간 등을 제거하고자 무오사화를 일으켰다.⁴¹⁾

이극돈은 金駟孫(1464~1498)이 자신을 논척하는 상소를 올린 적이 있고 『성종실록』 사초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자세히 썼기 때문에 원한을 품었으며, 유자광은 함양에 건 시를 김종직이 군수가 되어 철거하고 불사르게 하였기 때문에 원한을 품었다. 이극돈은 김일손의 사초에서 세조 때 일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원한을 갚으려고 유자광과 상의하였으며, 유자광은 김종직의 문집에서 「弔義帝文」과 「述酒詩」를 지적하여 세조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역죄로 논해야 한다고 하였다.⁴²⁾

연산군은 “지금부터 이후로 사건 관여자를 찾아올 때에는 그 집의 문서까지 수색하도록 하라.”는 전교를 내렸고,⁴³⁾ 유자광은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연산군에게 아뢰길, “이 사람이 감히 이렇게 不道한 말을 했더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문집 및 판본을 다 불태워버리고 간행한 사람까지 아울러 죄를 다스리시기를 청하옵니다.”라고 하였다.⁴⁴⁾ 이로써 김종직의 문집을 편집한 조위와 간행한

41) 무오사화에 대해서는 『寒岡集』 권15 「寒暄堂金先生年譜」 홍치 11년 무오(1498) 45세 조와 『燕山君日記』 권30 1498년(연산 4) 7월 29일 계해 2번째 기사를 참고하였다.

42) 『연산군일기』 권30, 연산 4년 7월 29일 계해 2번째 기사.

43) 『연산군일기』 권30, 연산 4년 7월 14일 무신 4번째 기사.

44) 『연산군일기』 권30, 연산 4년 7월 15일 기유 4번째 기사.

鄭錫堅(?~1500)까지도 화를 입게 된 것이다.⁴⁵⁾

연산군 역시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통해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난하였다고 해석하였다.⁴⁶⁾ 尹弼商(1427~1504) 등은 김종직의 「술주시」에 대해서 그 표현이 더한 점이 있다고 하였고, 연산군은 김종직의 문인들을 모두 처벌하려는 움직임 보였다.⁴⁷⁾ 결국 연산군은 김종직이 세조를 저해했고, 김종직의 문인들은 김종직의 뜻에 동조했다하여 이들을 모두 처벌하였다. 다만 무오사화로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화를 입고 있을 때 조위는 성절사로 명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귀국 후에 고초를 겪게 되었다.⁴⁸⁾

조위는 김종직의 처남이자 문인으로 젊어서부터 수업을 받았으며 특히 김종직의 문집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무오사화에 화를 입었다. 유자광은 김종직이 조위에게 보낸 시에 수록된 ‘六君의 성명이 이미 瀛에 올랐구려[六君名姓已登瀛]’라는 구절을 ‘東漢의 黨人들이 三君이라고 한 말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조위에 대한 국문이 결정되었다.⁴⁹⁾

1498년 9월 6일에 성절사로 명나라를 다녀온 조위가 의주에서 붙잡혀 왔고, 연산군은 ‘조위가 중국에 갈 때 김종직의 문집을 싸가지고 갔다고 하니 국문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조위는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술주시」의 내용이 기롱과 풍자를 가탁한 것이나 이것이 세조의 일을 거론한 것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⁵⁰⁾

그러자 연산군은 ‘김종직의 글은 권오복 · 권경유도 모두가 그것이 譏議의 작품임을 알면서도 함께 찬성하였다 하는데, 조위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하였고, 윤필상 등도 ‘조위는 큰 선비인데, 어찌 그 글이 부도한 것인지 몰랐겠습니까?’라고 하여 조위가 김종직의 글이 내포한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곧 연산군은 조위를 의금부에 하옥하고

45) 『연산군일기』 권30, 연산 4년 7월 16일 경술 1번째 기사.

46) 『연산군일기』 권30, 연산 4년 7월 17일 신해 2번째 기사.

47) 『연산군일기』 권30, 연산 4년 7월 17일 신해 4번째 기사.

48) 『연산군일기』 권29, 연산 4년 4월 11일 병자 1번째 기사.

49) 『연산군일기』 권30, 연산 4년 7월 18일 임자 1번째 기사.

50) 『연산군일기』 권31,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3번째 기사.

세조와 정희왕후의 능인 光陵에 다녀온 뒤에 형신을 가하겠다고 하였다.⁵¹⁾ 이후 조위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기 시작했다.

먼저 조위는 김종직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 김종직이 자신의 매부이기는 하나 어머니가 다른 누이의 남편이며, 김종직에게 수학하기는 했지만 『예기』를 다 배우지 못한 사이라고 하였다. 김종직의 문집 편집과 관련하여서는, 성종이 문사들의 유고를 들이라는 명을 하여서 이승소의 시문과 더불어 김종직의 시문을 교정하였는데 권질이 번잡해 간행하지 못하고 산문만을 초하여 한 권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全羅道 觀察使가 되었을 때 김종직의 문집을 간행하려고 하였으나 초상을 당해하지 못하고 대신 정석견에게 보내 간행하게 하였다고 함으로써 문집 간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⁵²⁾

한편, 조위는 무오사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술주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김일손·권경유와도 거리를 두었다. 조위는 忠淸道 觀察使가 되었을 때 김일손이 찾아와 김종직의 문집을 보여달라고 하여 내어주었을 뿐 그와 의논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권경유는 자신과 교유도 없고 글을 잘하지도 못하므로 원고를 초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⁵³⁾

다만, 조위는 지난해 강백진이 김종직의 시집을 자신에게 보여 주면서 간행할 것을 청해서 校書 別坐 李秀茂와 校理 柳孝山에게 부탁하여 鑄字로 먼저 한 권을 인출하였고 그 후에 중국에 사신으로 가게 되어 나머지 4권을 參議 李昌臣(1449~?)에게 주어 이수무에게 부탁해 인출을 끝마치도록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李仁亨(1436~1497)에게 부쳐주도록 했다고 하였다. 조위는 간행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항변을 한 것이다.⁵⁴⁾ 그러나 推官은 조위의 말을 변명으로 여기며 믿지 않았다.

51) 『연산군일기』 권31,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3번째 기사.

52) 『연산군일기』 권31,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6번째 기사.

53) 『연산군일기』 권31,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6번째 기사.

54) 『연산군일기』 권31,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6번째 기사.

추관이 아뢰기를, “조위가 이미 종직의 문집을 편찬하였으며, 그가 중국에 갈 적에 또 詩集을 인출하여 싸가지고 갔사온데, 전일의 供招에 ‘조의제문」과 「슬주시」의 辭意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손의 말에 ‘조위와 같이 상의하여 편찬했다’고 하였는데, 조위는 아니라고 하고, 권경유도 ‘조위가 문집을 발간하려고 원고를 신에게 부탁해서 초해 내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조위는 또 아니라고 하옵니다. 일손은 또 ‘조위는 젊어서부터 어른이 되도록 종직에게 수업을 했다’고 하였는데, 조위는 ‘단지 『예기』만을 배웠으나, 그것도 졸업은 못했다’고 말하니 이는 거짓입니다. 청컨대 刑罰하옵소서.”라고 하였다.⁵⁵⁾

연산군을 비롯해 무오사화를 주도하고 있던 윤필상 역시 조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윤필상은 “신이 만약 그 글 뜻을 알았다면 어찌 감히 성종께 올렸겠습니까?”라고 한 조위의 말로 볼 때는 그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실정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죄 석방할 수는 없고 표연말의 예에 의하여 논단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난언죄로 처벌받은 표연말은 장을 맞고 유배되었는데, 조위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결국 조위는 장을 맞고 義州로 유배되었다.⁵⁶⁾

1500년(연산군 6) 5월에 조위는 順天으로 移配되었고, 서문 밖에서 寓居하였다. 이때 김굉필도 熙川에서 순천으로 이배되어 조위와 함께 道義를 강론했다.⁵⁷⁾ 이때 조위가 유배가서 살던 곳 근처에 玉川이라는 이름의 시내가 있었는데, 수석이 청아하고 수려하며 오래된 고목들이 앙상하게 하늘을 가리고 있어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었다. 조위는 이곳에 돌을 쌓아 누대를 만들고 臨淸이라 이름 짓고 유유자적하는 장소로 삼았으며, 김굉필도 이곳을 오가면서 학문을 논했다.⁵⁸⁾

55) 『연산군일기』 권31, 연산 4년 9월 9일 갑진 1번째 기사.

56) 『연산군일기』 권31, 연산 4년 9월 9일 갑진 1번째 기사.

57) 『연산군일기』 권37, 연산 6년 5월 7일 경신 2번째 기사; 서제적암신편차, 『매계집』 「매계선생연보」. “弘治十三年. 【我燕山六年】 庚申. 公四十七歲. (중략) 五月, 移配于順天府, 僑居西門外. 時寒暄堂金公, 亦自熙川移配于此, 相與講論道義.”

58) 서제적암신편차, 『매계집』 「매계선생연보」. “弘治十四年. 【我燕山七年】 辛酉. 公四十八歲. 順天府西有溪, 名玉川. 水石清麗, 老樹槎牙. 距公所居甚近, 遂累石爲臺, 名之

유배 중에도 그의 문학적 재능은 조정에서 일컬어졌는데, 1500년 10월 5일에 성현은 “지금 시문을 잘하는 사람 중에 洪貴達(1438~1504)은 이미 늙었고 조위는 죄를 받았으며, 권진은 병이 있으므로 신 같이 재주 없는 사람이 외람되어 文翰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라고 하기도 했다.⁵⁹⁾

그러나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1503년(연산군 9) 11월 26일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같은 고을에 유배와 있던 김굉필이 고을 사람들을 이끌고 예를 갖추어 상을 치렀다. 이때 동생 曺伸이 고향 김산에 있었는데, 조위의 병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갔으나 이미 斂을 마친 뒤였다. 고향으로 운구하고 1504년(연산군 10) 3월에 장사지냈다.⁶⁰⁾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 이미 세상을 떠난 조위도 다시 화를 입었다. 연산군은 능상 풍조를 우려하여 李世佐(1445~1504)와 홍귀달처럼 연산군 대 훈구 재상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신하들에 대한 무차별적 숙청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갑자사화다. 그 발단은 생모 윤씨의 廢妃와 賜死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소급 처벌이었다.⁶¹⁾

1504년 10월 24일에 연산군은 조위를 표연말·정여창과 함께 부관참시 하도록 하였다.⁶²⁾ 조위가 연산군의 생모 윤씨의 폐비 논의에 깊이 관여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⁶³⁾ 성종이 중궁 윤씨를 폐하려고 할 때 온 조

曰臨清，以爲遊適之所。又作記以著之。金寒暄亦嘗從遊論學。”；曹偉，『매계집』 권4 「臨清臺記【先生自義州移配于順天時作】」。 “其西溪，出鸞鳳山之北，由時雨洞，縈回迤邐，東流繞出城南燕子橋下，入于東溪，其名玉川。湍流駿駛，又多嵌巖怪石，水勢甚慄悍。由燕子橋而西沿岸皆人家，竹籬茅舍，櫛比左右。由觀音坊而上百餘武，一作步水益清，石益奇，老樹蔽日，水涯寬平，可坐數十人，幽閑清爽，雖盛夏，不知有暑氣也。余到昇平，僑居西門外，距余舍甚近，故曰與邑中諸子，亟往過焉。因累石爲臺，名曰臨清。”

59) 『연산군일기』 권39, 연산 6년 10월 5일 병술 1번째 기사.

60) 서계적암신편차, 『매계집』 「매계선생연보」. “弘治十六年，【我燕山九年】癸亥，公五十歲。(중략)十一月二十六日，卒于謫所。金寒暄率邑人，備禮治喪。時弟伸在金山，聞公疾革，馳進則已斂矣。奉柩還鄉，請墓誌於洪虛白。明年三月日，葬于馬巖山先隴之東峯。”

61) 김범, 앞의 논문, 276~293쪽.

62) 『연산군일기』 권56, 연산 10년 10월 24일 신사 8번째 기사.

정이 불가하다고 반대하였고, 홍문관 관원에게 敎書를 지으라고 명하였는데도 모두 그 하교를 받들지 않았다. 이에 성종은 조위에게 교서를 짓도록 명하였고, 조위는 그 교서를 製進하였다.⁶⁴⁾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위는 김종직의 처남이자 문인이며, 문집 간행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으므로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위는 다시 화를 입게 되었다.

IV. 사후 복권과 역사적 평가

1506년(중종 1) 9월 2일에 반정이 일어나 중종이 즉위하고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 희생된 인물들이 복권되었다. 반정이 일어나고 하루 뒤인 9월 3일에는 갑자사화에 화를 입은 사람들에게 籍沒된 家産과 거두어진 告身을 돌려주도록 하였다.⁶⁵⁾

이어서 10월 7일에는 무오사화로 피해 입은 사람과 연좌된 사람도 석방하라는 전교가 내려졌으며,⁶⁶⁾ 김종직의 문인으로 중벌을 받고 죽은 사람을 추증하고 그 자손은 등용하도록 하였다.⁶⁷⁾ 이 과정에서 조위의 복권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1506년 11월 11일에 중종은 연산군 때 죄 없이 유배 가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유배지에 빈소를 차렸거나 혹은 고향에 장사지낸 사람도 있으니, 모두 관원을 보내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⁶⁸⁾ 1507년(중종 2)에 조

63) 『성종실록』 권144, 성종 13년 8월 11일 정미 3번째 기사. “李孟賢·朴安性·(중략)·曹偉議: ‘尹氏罪惡, 國人所共知. 但別置供奉之事, 前此大臣·臺諫·侍從, 皆已啓請, 今景祐亦如是啓達.’”

64) 『연산군일기』 권31, 연산 4년 9월 9일 갑진 1번째 기사. “成宗欲廢中宮尹氏, 舉朝廷爭不可. 命弘文館員製敎書, 皆不奉敎, 乃命偉, 偉製進.”

65) 『中宗實錄』 권1, 1506년(중종 1) 9월 3일 기묘 1번째 기사.

66) 『중종실록』 권1, 1506년(중종 1) 10월 7일 임자 8번째 기사.

67) 『중종실록』 권1, 1506년(중종 1) 10월 7일 임자 5번째 기사.

68)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1월 11일 병술 5번째 기사.

위는 완전히 신원되었고 가정대부 이조참판 겸 경연춘추관 성균관사 동지의금부사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추증되었으며 자손을 녹용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⁶⁹⁾

이세인이 또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 하였으니, 이는 효를 충성으로 옮길 수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성종 조의 김종직·유호인·조위가 그 아버이를 위하여 사직하자 곧 그 인근 수령에 제수하였고 그 사람들도 또한 정사에 근신했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忠孝兼全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⁷⁰⁾

조위는 김종직·유호인과 함께 충효겸전의 인물로 거론되었는데, 그가 아버이를 위해 사직하고 인근 수령으로 제수되자 정사를 근신했기 때문이다.⁷¹⁾ 또한 조위는 崔淑精(1435~1480)·成倪(1439~1504)·朴閔(1479~1504)·金孟性(1437~1487)·魚世謙(1430~1500)·金時習(1435~1493)·南孝溫(1454~1492) 등과 함께 성종 때 문장을 잘하는 명현이자 문사로 일컬어졌다.⁷²⁾

특히 그가 아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외직을 청해 지은 시는 문장의 좋은 예로 사용되기도 했다.⁷³⁾ 조위는 성종 때 시문을 잘한 사람의 대표

69) 서제적암신편차, 『매계집』 「매계선생연보」. “中廟靖國二年丁卯, 追雪冤罪, 贈公嘉靖大夫吏曹參判兼經筵春秋館成均館事 同知義禁府事 弘文館提學 藝文館提學 五衛都摠府副摠管, 命錄用子孫.”

70) 『중종실록』 권7, 중종 3년 11월 7일 신축 4번째 기사. “世仁曰: ‘古云: 『求忠臣, 必於孝子之門.』 言孝可移於忠矣. 成宗朝, 金宗直·俞好仁·曹偉爲親辭職, 輒除其傍近守令, 其人亦勤於政事, 所謂忠孝兼全者也.’”

71) 『중종실록』 권7, 중종 3년 11월 7일 신축 4번째 기사.

72)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3월 14일 갑자 3번째 기사. “參贊官李世仁曰: ‘(중략) 成宗朝教養文士, 人材大盛. 如崔淑精·成倪·曹偉·俞好仁·朴閔·金孟性·魚世謙, 皆一時名賢, 金時習·南孝溫, 雖非中科第, 亦一時文士.’”

73) 『중종실록』 권74권, 중종 28년 4월 13일 을유 1번째 기사. “安老曰: ‘勸獎之事, 不可以製述賞給而爲之. 人主一心之所好, 下人從之, 如影響焉. 自上若示其至誠好之心, 則朝廷無不好之也. 成宗朝, 曹偉·俞好仁等, 特優待遇, 其乞郡時所製之詩, 令書入, 臣之父訴, 在家所製之文, 亦令書入, 皆踏啓字而下之矣.’”; 『중종실록』 75권, 중종 28년 7월 29일 경오 6번째 기사. “金安老啓曰: ‘別抄文臣廷試時, 罷散在外人, 送題製來

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⁷⁴⁾ 金安老(1481~1537) · 洪彦弼(1476~1549) 등은 조위를 성종 때 문사로 계속해서 거론하였다.

한편, 김천의 景濂書院과 黃澗의 松溪書院에서는 조위의 신위를 배향하고 그의 학덕을 기렸다. 경림서원은 1648년(인조 26)에 창건되었는데, 조위를 비롯해 김중직 · 崔善門(?~1455) · 李約東(1416~1493) · 金始昌(1472~1558)을 모시고 있다.⁷⁵⁾ 창건 때에는 김중직 · 조위 · 이약동을 배향했으며, 1673년(현종 14)에는 최선문과 김시창을 추향했다. 송계서원은 1667년(현종 8)에 창건되었는데,⁷⁶⁾ 처음에는 조위와 朴英(1471~1540)의 신위를 모셨고,⁷⁷⁾ 후에 南知言(1507~?) · 朴惟東(1604~1688)을 추향하였다.⁷⁸⁾

시강관 李翊會(1767~1843)와 더불어 『羹牆錄』 제4권을 가지고 모두 들어와 엮으렸다. 임금께서 책을 열고 읽으라 명하셨다. 익회는 ‘조위가 외직을 청했다. [曹偉乞郡]’부터 ‘영애가 그 아버지에게 미쳤다. [榮及其親]’까지 읽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글의 뜻을 진달하라.”고 하니, 익회가 아뢰길, “조위는 경연관으로 외직으로 나가 군수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부터 효도로 다스리는 정치를 추구하여 그 아버지를 봉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없던 특별한 은

事下問, 而臣未知祖宗朝事. 但曹偉爲咸陽郡守, 俞好仁爲陝川郡守時, 常時所製, 皆令上送親覽. (중략) 成廟之時, 雖小藝, 皆篤好而不棄, 此祖宗朝好文之盛心也. 近處守令, 單騎上來製之, 亦不妨.”

74) 『중종실록』 권96, 중종 36년 11월 23일 을사 1번째 기사. “左議政洪彦弼啓曰: ‘(중략) 製述之事, 亦有異於古也. 古者月課卽製入, 大提學親到弘文館, 考其優劣. 成宗朝曹偉, 每等居首. 下問曰: 『何善製若是耶?』 對曰: 『偶然耳.』 曰: 『汝言是.』 極爲褒獎. 今則無如此之事, 故無有激勵之人.’”; 『중종실록』 권101, 중종 38년 10월 10일 신사 1번째 기사. “領事洪彦弼曰: ‘成廟朝曹偉爲承旨, 而能文焉. 成廟曰: 『承旨雖獨往試製, 必不誤選.』 遂遣成均館, 使製『息馬論道賦』, 取生員黃啓沃所製入之, 成廟覽之, 嘆服無已.’”

75) 李肯翊, 『燃藜室記述』 별집 권4 「書院」. “景濂書院. 【戊子建.】 金宗直. 崔善門. 【工判. 文惠公. 清白吏.】 李約東. 曹偉. 金始昌. 【見上.】”

76) 이공익, 『燃藜室記述』 별집 권4 「書院」. “松溪書院. 【顯宗丁未建.】 南知言 【三槐堂. 參奉.】 朴惟東 【一石. 參奉.】”

77) 宋時烈, 『宋子大全』 권151 「黃澗松溪書院奉安四先生文」.

78) 鄭澣, 『丈巖集』 권22, 「松溪書院南三槐 · 朴一石二賢配享文」.

전이었습니다. (중략) 조위가 특별히 두터운 은혜를 받은 것은 진실로 훌륭한 일입니다. 이는 단지 가문의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일세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⁷⁹⁾

조위가 아버지를 위해 외직을 자청한 일이 『갱장록』에 수록되었고, 이것이 순조 때 경연에서 읽혔다. 1731년(영조 7) 8월 11일에李世瑾(1664~1735)이 『聖朝羹牆錄』을 영조에게 올렸는데, 이 책은 경종 때까지 嘉言과 善政 가운데서 본받을 만하고 실행할 만한 것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⁸⁰⁾ 정조 때는 이 『갱장록』의 續錄을 편찬하도록 하였다.⁸¹⁾

시강관 이익회는 ‘조위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외직을 청하고 성종이 이를 허락한 일’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효도로 다스리는 정치를 추구하여 그 아버지를 봉양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이전에 없던 특별한 은전’이며, ‘조위가 특별히 두터운 은혜를 받은 것은 진실로 훌륭한 일이며, 이는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일세를 놀라게 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한편, 1713년(숙종 39) 11월 23일에 조위에게 文莊이라는 諡號가 내려졌다.⁸²⁾ 그런데 延諡를 행하지 못해 실제로는 1736년(영조 12)이 되어야 시호를 받게 되었다. 경상감사 閔應洙(1684~1750)가 좌의정 金在魯(1682~1759)에게 경상도의 일을 사적으로 보고한 일이 있었는데, 김재로가 이 일을 영조에게 보고하였다. 그는 ‘경상도에는 갑자사화 때 명현 조위와 朴漢柱(1459~1504), 임진왜란 때 黃石山城에서 순절한 趙

79) 『승정원일기』 2117책(탈초본 109책) 순조 19년 6월 3일 계사 34/35 기사. “與侍講官李翊會, 持『羹牆錄』第四卷, 偕入進伏. 上命開卷讀之. 翊會讀自曹偉乞郡, 止榮及其親. 上曰: ‘文義陳之.’ 翊會曰: ‘曹偉以經幄之臣, 出守外郡, 而自上克推孝理之政, 俾令致齋于其親, 此曠絕之異數也. (중략) 曹偉之特承恩渥, 誠爲盛事, 非獨私門之榮感, 允宜一世之聳動矣.’”

80) 『영조실록』 권30, 영조 7년 8월 11일 신축 1번째 기사.

81)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10월 19일 을미 1번째 기사;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 10월 21일 정유 2번째 기사.

82) 李緯, 『陶菴集』 권27 「參判梅溪曹公神道碑」. “肅廟朝加贈吏曹判書, 諡曰文莊.”; 『숙종실록』 권54, 숙종 39년 11월 23일 정묘 1번째 기사.

宗道(1537~1597) 등에게 시호를 내린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본가의 힘이 없어 연시를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⁸³⁾

宣諡官이 그 본가로 나가게 되면 시호 받는 자의 신주를 모시고 나와 의식을 행하고 맞아들이게 되는데, 연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신주에 그 시호를 쓰지 못하게 된다. 당시 조위는 대진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유현들과 상의하여 신주를 별묘로 옮겨 대우하였으므로 연시를 하게 되면 신주에 시호를 쓸 수 있었다. 김재로는 이조에서 경상감영에 이문하여 본가의 상황을 살펴 기일을 정한 후에 즉시 시호를 내려 연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⁸⁴⁾

한편, 1735년(영조 11) 윤4월 18일에 지경연사 김재로는 ‘살아서 학문에 독실하고 실천에 힘썼는데 죽어서 행적이 모두 사라져 버려 칭송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조정에서 포상하고 증직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曹逾(1649~1696)를 꼽았다. 그는 “김산 사인 조유는 고 명신 문장공 매계 조위의 후손이자 선정신 성혼의 외현손입니다. 가문의 근원은 이와 같고 천성은 순수하며 도에 가까워서 어려서부터 효도와 우애가 특히 남달랐고 학문이 두루 정밀하였으며 실행이 독실하였기에 한 도의 선비들이 한 목소리로 탄복하였습니다. 학문과 덕행으로 여러 차례 천거 단자에 올라서 初仕에 의망되었는데, 말단 벼슬에 오르기도 전에 불행히 요절하였습니다. 그를 칭찬하며 애달파하는 선배가 한둘이 아니니, 그가 어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포상을 청하였고, 영조는 증직을 명했다.⁸⁵⁾

또한 1737년(영조 13) 3월 3일에 경상감사 민응수는 “고 명신 조위, 선정신 김굉필·정여창은 일찍이 숙종조 때 벼슬과 시호를 더 추증하게 하였으며, 고 명신 객재우와 趙宗道도 벼슬과 시호를 추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3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恩命을 받지 못했으니, 삼가

83) 『승정원일기』 838책 (탈초본 46책) 영조 12년 12월 10일 기사 11/11 기사.

84) 『승정원일기』 838책 (탈초본 46책) 영조 12년 12월 10일 기사 11/11 기사.

85) 『승정원일기』 800책 (탈초본 44책) 영조 11년 윤4월 18일 정해 16/16 기사; 『영조실록』 권40, 영조 11년 윤4월 18일 정해 2번째 기사.

V. 맺음말

조위는 1454년 7월 10일에 김산군 봉계리의 집에서 조계문과 문화유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매부인 김종직과 당백부인 조계문에 게 수학하여, 19세 때인 1472년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입격하였고, 21세 때인 1474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이후 사헌부 지평 · 홍문관 교리 · 충청도 관찰사 ·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고, 시문에 능해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 연산군이 즉위한 후에도 한성부 우윤 · 성균관 대사성 · 오위도총부 부총관 등에 제수되었다.

1498년에 성절사로 명나라에 갔던 조위는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귀국과 함께 잡혀와 국문을 받고 유배 가게 되었고, 1503년에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연산군의 생모 윤씨의 폐비 논의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미 세상을 떠난 조위는 1504년 갑자사화 때 다시 부관참시의 화를 입었다.

중종반정 직후 조위는 바로 신원 복권되었다. 이후 그는 성종 대를 대표하는 문장가로 인정받았으며, 아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외직을 청한 일로 忠孝兼全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또한 연산군 대 폭정에 항거한 명현으로 추앙받았다. 이러한 평가로 인하여 김천의 경림서원과 황간의 송계서원에 배향되었으며, 文莊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이 봉양을 위해 외직을 청했던 일화가 『갯장록』에 수록되어 경연에서 읽히기까지 했다. 이후 그의 5세손 조유, 6세손 조세봉, 8세손 조문검은 명현의 후손이란 이유로 증직되거나 관직을 제수받았다. 이는 조위를 충효 겸전한 인물로 조정에서 현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명현의 후손으로 증직되거나 관직을 제수받은 일은 영조 대 이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甲戌換局 이후 중앙 정치 진출이 차단되면서 불만이 고조되어 가던 영남 지역에 대한 위무책으로 영조 초에 調用論이 제기되면서 영남 인물들에 대한 천거가 이루어졌다. 또한 무신란 이후에는 동요된 민심을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영남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명현의 후손으로 향촌

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에 대한 천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⁹⁰⁾ 이러한 내용은 무신란 이후 경상감사를 지낸 朴文秀(1691~1756)·趙顯命(1690~1752)·金在魯(1682~1759)·閔應洙(1684~1750) 등이 공유하는 바였다.

정조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고자 ‘충신은 효자에게서 구한다’와 ‘故家世族을 병풍과 울타리로 세운다’는 옛말을 명분으로 삼아 영남·호서·호남 지방의 고가세족 가문의 후손에 대한 천거를 받았다.⁹¹⁾ 조위의 후손들이 증직되거나 관직에 제수된 것은 기본적으로 명현의 후손으로 향촌 내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신란 이후 동요된 민심을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영남 지역을 통치하며 왕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고자 한 정치적 의도 또한 숨어 있다고 하겠다.

※ 이 논문은 2021년 8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90) 李根浩, 「英祖代 戊申亂 이후 慶尙監司의 收拾策」, 『嶺南學』 17, 2010, 153~162쪽.

91)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12월 20일 을묘 2번째 기사.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國朝人物考』
『陶菴集』
『萬家譜』
『梅溪集』
『成化八年壬辰 月 日司馬榜目』
『宋子大全』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燃藜室記述』
『日省錄』
『丈巖集』
『寒岡集』

조위 지음, 이동재 옮김, 『매계집 梅溪集』, 평사리, 2009.

곽귀남, 「梅溪 曹偉의 詩文學에 나타난 官僚文學의 性格」,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金範, 「朝鮮 燕山君代의 王權과 政局運營」, 『大東文化研究』 53, 2006.

윤호진, 「梅溪 曹偉의 學問淵源과 詩世界: 佔畢齋 金宗直 門下에서의 位置와 戊午 士禍를 전후한 詩世界の 두 局面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 20, 2005.

이가원, 「萬憤歌 研究」, 『동방학지』 6, 연세대학교, 1963.

이구의, 「梅溪 曹偉의 歷史意識 - 鷄林八觀을 중심으로」, 『상주문화연구』 5, 1995.

이구의, 「梅溪 曹偉의 문학에 나타난 정신세계 - 그의 散文을 중심으로 -」, 『韓國思想과 文化』 20, 2003.

李根浩, 「英祖代 戊申亂 이후 慶尙監司의 收拾策」, 『嶺南學』 17, 2010.

이동재, 「梅溪 曹偉의 文學觀」, 『한문교육연구』 15, 2000.

이동재, 「梅溪 曹偉의 <平壤八絶> 시 연구」, 『우리文學研究』 13, 2000.

- 이동재, 「梅溪 曹偉의 <鷄林八觀> 詩攷」, 『漢文古典研究』 7, 2003.
- 이동재, 「梅溪 曹偉의 ‘遊松都’詩 研究」, 『漢文古典研究』 14, 2007.
- 이동재, 「梅溪 曹偉 편집 『遊松都錄』 소재 한시연구」, 『한문교육연구』 31, 2008.
- 이성형, 「梅溪 曹偉의 燕行文學 研究」, 『漢文古典研究』 25, 2012.
- 이승남, 「流配歌辭의 社會的 意味와 文學的 解釋」,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의강, 「梅溪 曹偉 漢詩의 문예미학적 성취」, 『漢文學報』 17, 2007.
- 장철식, 「梅溪 曹偉 詩文學의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허권수, 「매계집 해제」, 『南冥學研究』 5, 1995.

Abstract

A study on historical evaluation of Jo Wi(曹偉) who was victimized by the massacres of Confucian scholars and reinstated after death

Yi, Nam-ok

This article was written to explore historical evaluation of Jo Wi(曹偉) who was victimized by the massacres of Confucian scholars. From an early age, Jo Wi took lectures from Kim Jongjik and Jo Gyemun. He passed the entrance exam in 1472 and the bureaucratic exam in 1472. After that, he served as the Saheonbu Jipyeong, Hongmungwan Gyori, Chungcheong Province, and the chief of the king's secretary. He was also good at writing and was favored by Seongjong(成宗). Even after the enthronement of Yeonsangun(燕山君), he served as Hanseongbu Wooyun, Sungkyunkwan Daesaseong, and Owidochongbu Buchongggwan. In 1498, he also visited the Ming Dynasty as a representative of the envoys. But then, the massacres of Confucian scholars happened. Upon returning Joseon(朝鮮), he was arrested, interrogated, and sent to exile. It was because he was Kim Jongjik's brother-in-law and disciple, and he edited the collection of Kim Jongjik's works. And then He died in exile in 1503.

He was recognized as the representative writer of Seongjong's generation, and was evaluated as A person who was good at both loyalty and filial piety for requesting to work as a local official to provide for his parents. He was also revered as a great person who resisted the tyranny of Yeonsangun. Due to these evaluations, after

his death, he held ancestral rites at the Gyeongryeom Seowon in Gimcheon and Songgye Seowon in Hwanggan, and was given the title of Munjang(文莊) by the Dynasty. And Jo wi's 5th-generation grandson Jo Yu(曹逾), 6th-generation grandson Jo Syebung(曹世鵬), and 8th-generation grandson Jo Mungeom(曹文檢) became officials or promoted because they were descendants of great person. This was possible because Jo wi was highly regarded by the dynasty as A person who was good at both loyalty and filial piety.

keywords :

Jo Wi(曹偉), The massacres of Confucian scholars(士禍),
A person who was good at both loyalty and filial piety(忠孝兼全),
Gyeongryeom Seowon(景濂書院), Songgye Seowon(松溪書院)